



[금융]
신한금융그룹
한국판 뉴딜에
26조 '통큰 투자'
05



Economy

코스피 2384.22 (+15.97)	코스닥 878.88 (+12.84)
금리(무기계약) 0.973 (+0.044)	환율(USD-달러) 1188.30 (-1.30) (7일)

소상공인 폐업시계 '짜깁짜깁' 석달새 2만곳, 임대료에 '두손'

코로나 재확산에 폐업 속출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급감
'지원금 요청' 청 청원 봇물

#. "1차 대출로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제는 한계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다.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100만~200만원은 월세 값도 안 된다.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는데, 월세는 딱딱딱 나가는 상황이다. 수개월째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렵다.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면제하지 않는 이상 폐업이 답일 듯 하다." (자영업자카페 게시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시간이 줄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추석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 등 고정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는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 임대인을 구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7일 한국신용데이터 '8월 넷째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지수'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0.68로 지난주(0.75)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매출지수는 이번주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이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의

미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지난달 30일 하루 매출만 반영됐음에도 매출금액이 급격히 줄었다는 설명이다.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폐업하는 가게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 321개로 1분기(39만1499개)에

비해 5.4%(2만1178개) 감소했다. 7월, 8월에 폐업한 상가를 포함할 경우 3분기 상가 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경기 침체가 지속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점포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서울 전세난 확산... 거리두기로 거래 올스톱

정부규제에 전세매물 실종
코로나야 관망세 지속될 듯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후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전세난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전세물건은 급격히 줄었고, 월세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시행하면서 매매와 전세 시장은 거래절벽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강남4구 전세품귀, 최대 호가 3.4억원 ↑

7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물건은 손에 꼽을 정도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세물건이 실종됐으며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전용면적 94.49㎡)는 18억5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17억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지난 2월 전세계약이 체결된 가격보다 호가가 3억원 가량 오른 청담자이(전용면적 50.31㎡)는 12억3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서초구 신반포자이(전용면적 84.87㎡)는 11억5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지난달 보다 2억 5000만원이 오른 14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방배자이(전용면적 194.92㎡)는 16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송파구 장미1차(전용면적 174.55㎡)는 10억원에 전세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6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한달새 전세호가가 4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송파힐리오시티(전용면적 84.99㎡)는 10억5000만원, 리센츠(전용면적 84.99㎡)는 12억원에 전세물건이 나왔다. 강동구는 고덕그라시움(전용면적 59.02㎡)이 지난 5월 계약된 전세가보다 1억원 오른 6억5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 이내) 시행으로 임대료를 미리 올려놓는 집주인이 많았다"라며 "게다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인이 집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강북, 중저가 아파트 중심 상승

전셋값 상승은 강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한 축인 마포구 공덕 래미안1차(전용면적 114.88㎡)는 8억원에 전세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7억 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용산에서는 왕궁아파트(전용면적 102㎡)가 7월 보다 9000만원 가량 오른 8월 4억 5000만원에 계약됐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2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964@



社告

메트로신문 '제5회 물류&e모빌리티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이정표를 향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도 크지만 우리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산업 역시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개인인의 소비와 연결되는 택배를 포함한 산업대동맥인 '물류', 그리고 인간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모빌리티'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빠르게 변화·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각종 기술들과 융합하면서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가속화가 대표적입니다. 물류와 모빌리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변화를 가져올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물류와 모빌리티의 발전상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미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욱 앞당겨줬을 뿐입니다. 올해로 5회차를 맞는 '물류 & e모빌리티 포럼'이 그 해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이정표를 향하여
 - 일 시 : 2020년 9월 24일(목) 14:00~16:30
 - 장 소 : 웨비나(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후 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 등 록 : 사전등록, 홈페이지 접속(www.metroseoul.co.kr)
 - 접 속 : 참가 신청자 이메일로 개별 공지
 - 기조강연 : 주영섭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전 중소기업청장)
 - 강 연 1 : 이재은 비트센싱 대표
 - 강 연 2 : 김중배 KST모빌리티 대표
 - 문 의 : 제5회 물류&e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용 '미래 먹거리' 적중 삼성, 美에 '5G 장비' 공급



버라이즌과 7.8조 규모 계약

삼성전자가 드디어 미국에도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7일 삼성전자 미국이 미국 버라이즌에 7조8982억8000만원(약 66억달러) 규모 네트워크장비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간 버라이즌에 네트워크 솔루션을 5년간 공급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를 맡을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한국 통신장비 산업에서 단일 수출 계약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삼성

전자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인 미국에 핵심 장비 공급자로 인정받고 본격 진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 일본 KDDI와 장비 계약을 맺기도 했다. 미국에도 버라이즌뿐 아니라 AT&T, 스프린트 등 통신 업체에 5G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 먹거리 투자 노력이 적중한 셈이다. 이 부회장은 2018년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 육성 사업에 5G 통신장비를 포함시키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왔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